



< 영 > 1월의 첫 목장모임에 오신 모든 목장원들을 환영합니다.

<찬 양> 찬송가 254장 내주의 보혈은, 찬송가 149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 성도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초로 모든 삶을 예배로 드려야 한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12:1) “그러므로” 속에는 11장 전체의 요약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11장까지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인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죄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확인되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받고 보니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여지도 없고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롬5:8)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11장까지의 내용을 ‘죄인, 율법, 그리스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내용을 받아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 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성도들을 권했습니다.(12:1) “자비”는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의 확증을 말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 생각과 행동의 기초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놓고 던지는 냉정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사랑한 기초로 간절하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 1) 11장까지의 내용은 ‘죄인, 율법, 그리스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모두 ()입니다. 이것은 ()을 받고보니, 우리가 ‘죄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롬5:8)
- 2)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혹, 나는 나의 가족, 친척, 이웃, 동료에게 무엇인가를 권면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여 권면하고 있는지 이야기 해 봅시다.

2. 우리의 온 인격을 통하여 이 세대를 흉내 내지 않고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가치관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몸”은 헬라어 ‘소마’로서 인격체로서의 몸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포함됩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전부를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헌신의 현장으로 가려면 내면의 인정과 의지 등 모든 것들이 작용되어야 합니다. 몸은 인격, 마음, 정신, 세계관 등을 담아낸 통합적인 인격을 함의합니다. 그런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산 제물의 반대말은 죽은 제물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죽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매년 율법을 따라 제물을 죽여서 죄를 전가시켜 드렸습니다. 이것을 매 번마다 반복하여 드렸습니다. 끝내 죽은 제사 속에 담겨진 영원한 산 제물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단번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생명의 새롭고 산 길을 열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확증된 사랑에서 우리의 산 제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산 제사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제사는 삶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12:2) 이 세대는 이 세상의 풍조, 패턴, 스타일, 경향과 같은 세속적 가치들을 말합니다.(요일2:15~17)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까지 이 세상의 경향과 풍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한국기독교는 상당 부분에서 샤머니즘화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철저히 본질을 지켜낼 때, 세상이 끌려오게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흉내 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는 이 세대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3) 바울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몸(헬라어:소마)은 통합적인 인격을 말하는데 나는 어떤 ‘인격’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이야기 해 봅시다.
- 4) 우리의 ‘산 제사’는 삶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12:2)라고 합니다. 혹시 나는 ‘산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흉내 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누어 보고, 그것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은혜롭게 나누어봅시다.

3. 산 제물로 예배 드리는 일은 이웃사랑과 하나님사랑으로 드러난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무의식 세계로까지 정착되도록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받는 신앙훈련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무의식에까지 미치는 가치관이 바뀌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선교와 복음전도(롬15:16),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삶의 예배(빌2:17), 이웃사랑과 복음역사를 위하여 예물을 드림(빌4:18), 찬송의 열매와 나누어줌(히13:15,16), 기도(계8:3,4) 기도와 구제(행10:4), 형제사랑(엡5:2)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형식의 예배를 마치고 시작되어지는 일상에서 이웃사랑과 하나님사랑을 통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순종을 감당해야 합니다.

- 5)마음의 변화는 ‘무의식 세계’로까지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나는 지금까지 어떤 신앙훈련을 받아왔는지, 또 앞으로 받을(받고싶은) 신앙훈련을 통하여 새롭게 하고픈 마음의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개인의 바램을 이야기 해 봅시다.
- 6)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①선교와 복음전도 ②삶의 예배 ③이웃사랑과 복음전도위한 예물 드림 ④찬송의 열매 ⑤기도와 구제 ⑥형제사랑 등입니다. 이 중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꼭 드리고픈 제사는 무엇이 있는지 신앙의 소망을 담아 나누어 봅시다.

<기 도>

1. 개인/가정: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개인과 가정이 되게 하소서
2.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의 거룩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소서
3. 나라: 모든 나라의 행정과 집행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소서